

AUTHOR 허순길

TITLE 개혁주의 직분관

-19세기 미 장로교회 내의 논쟁을 중심으로-

IN 고려신학

vol.2 no.1 (December, 1992): 73-111

하나님은 빛이시라 (ho theos phous estin: 1:5). ②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tekna thē u esmen: 3:2). ③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ho theos agapē estin: 4:8). ④ 성령은 증거하는 이이다(to pneuma estin to marturūn: 5:6).

개혁주의 직분관

- 19세기 미 장로교회 내의 논쟁을 중심으로 -

허순길

교회는 종교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약속하여 이룩한 인간 계약의 공동체가 아니다.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친히 불러내어 거듭나게 한 새사람으로 이루어진 신적(divine) 공동체이다. 그러기에 이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 직분도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다. 교회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불러 세우신 것이다(고전12:28; 엡 4:11). 그가 직접 사도들을 불러 세우셨다. 그러나 다른 여러 직분들은 교회를 통해 불러 세우셨다. 초대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세워졌었다. 전도자, 교사, 장로, 집사 등이 세워진 것이다. 그런데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일찍부터 사도직은 비상한 직분으로서, 사도들이 교회의 터를 놓고 사라진 후 그 직분의 계승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왔다. 교회의 왕이신 주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직분들 가운데 교회를 계속 가르치고, 다스리고, 돌보기 위해 목사, 장로, 집사 삼직을 항구적인 직분으로 세우신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개혁주의 세계(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서는 이 세 직분의 본질에 대해 같이 생각하면서도 세미한 면에 있어서는 이해를 달리하며, 그 적용면에 있어서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차이는 같은 장로교 세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장로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미 장로교회 사이에 차이가 있고, 미 장로교회와 이 장로교회가 선교하여 세운 한국 장로교회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19기 중반에(1840-1861) 미국의 남북장로교회의 대표적인 두 신학자 사이에 장로직과 목사직의 성경적 이해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당시 북장로교회의 대표적 신학자는 찰스 하지(Charles Hodge, 1797-1868)였고, 남장로 교회의 대표적 신학자는 제임스 헨리 쏘넬(James Henley Thornwell, 1831-?)이었다. 특별히 이 두 신학자는 장로와 목사직의 성경적인 근거와 기능에 관한 논쟁을 벌였다. 남북 장로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해는 이 두 신학자들로부터 각기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이 두 교회는 합동하게 되어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교회는 직분을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 이 두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 그 이유는 한국 교회가 이 남북 장로교회의 선교로 터를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위에 언급한 두 신학자들의 쟁점을 간단히 살펴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목사와 장로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 보려 한다.

1. 목사와 장로

목사는 기본적으로 장로이다. 장로직의 기본적인 사명은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기본적으로 다스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미국 장로교회 안에서는 장로직의 원래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매우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다. 그것은 특별히, 앞서 언급한 두 신학자간의 논쟁에서였다. 이들은 각기 남북 장로교회의 전통을 세우는 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양 교회는 한국 선교 초기부터 선교활동에 임했고 한국 장로교회의 터를 놓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통을 세우는 일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 지난날의 우리 교회 정치 제 13조에서 “장로는 두 반이 있는데 (1) 설교와 치리와 성례 집행을 겸하는 자를 목사라 칭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칭하며,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라고 하는 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장로관은 남·북 양 장로교회 전통의 혼합이라

고 보여 진다.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Teaching Elder)와 다스리는 장로(Ruling Elder)의 두 반으로 나누는 것은 쏘넬의 주장을 따른 남 장로교회의 전통에서 온 것이고, 다스리는 장로를 ‘교인의 대표자’라고 표현한 것은 찰스 하지의 주장을 따른 북장로 교회 영향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Hodge)와 쏘넬(Thornwell)은 성경이 말하는 장로직이 원래 다스리는 직분을 말하는지, 가르치는 직분을 말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는 성경이 말하는 ‘장로’(πρεσβυτερος)의 명칭은 가르치는 직분에만 관련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는 현재 장로교회에서 다스리는 장로를 성경이 말하는 ‘장로’라는 직분의 명칭에서 찾지 않았다. 그에 의하면 이 다스리는 교회의 장로는 직분 명칭인 ‘장로’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다스리는 자’(롬 12:8)와 하나님 이 교회 중에 세우신 ‘다스리는 것’(고전 12:28)에서 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 이론에 대한 정당성을 “웨스트민스터정치(The Form of Presbyterianial Government)”와 칼빈에게서 찾는다.

반면에 쏘넬은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원래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맡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성경과 초대 교회로부터의 증거를 제시하고, 그도 역시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에 그 근거를 두었다. 성경에 나타난 ‘장로’의 본래 직책에 관한 견해 차이는 장로, 목사의 지위, 직임, 권리에 대한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는 말씀의 봉사의 직분에 매우 특수한 성격을 부여한다. 그에 의하면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이고,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며, 항존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며, 안수권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장로직은 교회 곧 신자들의 대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쏘넬은 목사·장로사이에 직임의 차이만을 인정하고,

양 직분은 같은 장로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위와 권리의 차이를 부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성경에서 장로가 원래 다스리는 직분이었는지, 혹은 가르치는 직분이었는지 장로의 기본적인 직임에 관하여 밝히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분명하게 밝혀질 때에 위에 언급한 장로와 목사직에 대한 견해차이에 대한 답을 원리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1. 장로(πρεσβυτερος)가 받은 원래의 직책

하지와 쏘넬 모두 성경에 언급된 '장로'와 '감독'이란 직분의 명칭이 동의어라고 생각을 한다 (행 20:17 과 28; 딤후 1:5, 7비교). 그러나 이 직분의 명칭을 통해 가리키는 기능에 관하여는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하지는 성경의 장로직이 가르치는 직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주장을 장로와 감독이 동의어라는 사실에 기반을 둔다. 그의 확신에 따르면 감독(επισκοπος)은 원래 교사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로 딤후 1:5-9을 제시한다. 9절에 감독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하지는 교회의 가르치는 모든 활동을 목사에게 돌리고 있다.

하지의 주장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다음 두 가지를 밝힘으로 분명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감독이라는 직분 명칭의 내용이 참으로 가르치는 직분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다음은 교회에서 다스리는 직분이 가르치는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첫째로 제기된 물음에 관하여, 하지는 감독이란 직분 명칭의 내용에 관한 선명한 해석학적 연구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딤후 1:5-9에 대한 호소는 큰 의미가 없다. 성경 밖의 일반회랍

어에서의 감독(επισκοπος)이란 말이 가진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은 '파수군, 보호자'등을 가르킨다. 이런 뜻으로 회랍어에서는 이 말이 신들에게 적용이 되었다. Homerus에서는, 신들이 '계약에 대한 감독(파수군)'이라고 불리고 있다. 나아가 이 말은 여러 종류의 직분의 기능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기술적, 경제적인 의무를 진 직분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동생활에서 책임을 진 분들은 '감독'이라 불려졌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감독은 원래 가르치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외적인 관리 기능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성경에 언급된 감독이란 직분의 원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 밖의 회랍어 세계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 유대교에서도 이 어휘는 있다. 70인역에서 이 말은 일반 회랍어에서와 같이 두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한편으로, 욥 20:29의 회랍어 번역에서 이 말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으며 불경건한 자들을 위한 심판자로 보여지고 있다. 다른 편으로 감독은 일반적으로 '관리자, 호위관'을 가리키고 있다 (왕하 11:19; 대하 34:12,17; 느 11:9, 14, 22). 이 명칭을 가진 직분이 종교의식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기도 하나 제사장적인 성격에 속하지는 않고 외부적 질서를 유지하는 자로 관계를 가진다.

이런 어휘가 그리스도인들의 통해 교회에 소개되고 교회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70인역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고 회랍어를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읽을 때에 70인역을 사용했다.

감독과 장로라는 두 가지 직분의 이름이 병행해서 쓰여진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는 이방인에게서 왔고, 또 다른 일부는 유대인들 세계에서 왔다는 사실로부터 설명이 될 수도 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감독이라는 말을 직분적 명칭으로 사용하기를 선호했을 것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장로라는 말을 선호했을 것이다. 감독이라는 직분명칭이 특별히 바울의 선교지역에서 많

이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빌 1:1).

이상에서 우리들은 초대교회에서 사용된 감독이란 말이 원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직분을 가리켰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다. 일반 회랍어와 70인역이 이를 확증해 주고 있다. 또한 감독이란 직분의 명칭이 분명히 다스리는 직분을 의미하는 유대인의 직분 명칭인 장로와 동의어라는 것이 이를 확증해 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위에 제시한 둘째 문제, 곧 성경에 의하면 가르치는 활동이 교회에서의 다스리는 직분의 측면에서 전혀 생소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음이 분명하다. 가르치는 일이 처음부터 다스리는 직분에 비추어 볼 때 생소하지 않았다. 가르치는 일은 다스리는 일에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고려하게 된다. 교회의 초기단계에 가르치는 일은 비상(非常)한 직분자들인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전도자들과 교사들이었다. 그리고 이 때에 교회에는 가르치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었다. 우리는 신약에서 신자들이 그들이 받은 은사들을 자유롭게 했던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고전 14장이 알려주는 일을 기억하게 된다(고전 14:1, 5, 13-19, 26, 29, 30). 신자들은 그들이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 건설을 위해 서로 봉사했다. 이러한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동안 특별히 가르치고 설교할 기능을 수행할 특수한 직분에 대한 필요성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매우 조심스레 그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때에 벌써 장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장로를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견하게 된다(행 11:30). 언제 이들이 장로로 세워졌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바빙크(H. Bavinck)는 집사 직분이 세워진 것으로 생각되는 사도행전 6장의 역사이전에 사도들에 의해 벌써 예루살렘에 장로들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예루살렘교회에서 매우 일찍이 회당의 예를 따라 장로 직분이 세워졌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성

령 강림 후 신자들의 빠른 증가는 사도들에게 교회지도와 감독을 위한 큰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언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아직 교회에 역사하고 있었을 때에 장로가 세워진 것이다. 초대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었다. 다양한 은사가 역사하는 교회에 장로 직분이 소개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때에는 잘 다스릴 뿐 아니라, 또 가르치는 은사도 가진 사람들이 장로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 없다. 행 15장은 장로들이 예루살렘의 공의회에서 교리에 대한 문제를 사도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의 사실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감독과 장로라는 어휘를 회랍과 유대인의 세계에서 가져왔다. 그러나 이 어휘들이 교회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이 새 풍토와 환경을 통하여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회랍세계에서의 감독이나 유대인 세계의 장로는 외적인 질서를 관리하는 책임을 져야 했다. 그 세계의 장로는 회당의 시민 교회적인 혼합된 직임을 수행했다. 그러나 교회의 다스리는 직분은 관리나 외부적인 질서를 다스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리스도 교회를 위한 영적, 목자적 관리에 대한 책임을 졌었다. 이 직임은 일반적인 시민적 봉사와는 완전히 구별이 되었다. 교회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인도하며 거짓 교리가 침범해 올 때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이별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고 한 말에서 분명히 나타난다(행 20:28). 사도 베드로는 자신도 한 장로임을 밝히면서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라”고 권면했다(벧전 5:1-3). 양무리를 치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설교한 요10장으로부터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는 그의 음성으로 그의 양무리를 불러낸다고 하고(3, 4절), 그의

음성으로 인도한다고 한다(16절). 그래서 바빙크는 '친다'는 말이 넓은 뜻에서 교사의 일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장로의 사역인 다스리는 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한 상당한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다스리는 것은 또한 '권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고 한다(살전 5:12). 다스리는 자가 권하는 수단은 인간의 지혜나 그 지혜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지혜임에 틀림 없다. 결과적으로 장로는 실상 감독하는 직분자로서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다.

역사의 진전을 따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한데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행 20) 장로의 능력과 지식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교회는 선교사역을 통해 로마 지역까지 서게 되었다. 그런데 비참한 직분자인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역사 무대로부터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이때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주께서 일찌기 경고한 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벧후 2:1; 요일 4:1; 약 3:1; 마 7:15, 24:11; 말 13:22; 눅 6:26), 나아가 영지주의(Gnosticism)와 신비주의가 나타났다(요한 복음, 요한 서신을 보라).

이런 교회의 형편은 장로들(감독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고, 잘 감독하기 위해서 상당한 복음 지식을 갖추게 했다. 그러므로 목회서신에서 감독직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에 있어서 기독교 교리를 지지하고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딤후 3:20에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여야 한다"고 한다. 딤후 1:9에 의하면, 감독(장로)은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 요구는 목사 후보자들에게만 적용될 수는 없다.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가르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장로 직분에 속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성경본문에서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의 장로(감독)들이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영적 치리를 위해서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교회의 영적 치리와 관련하여 현 주제의 연구를 위해 사도 바울이 딤후 5:17에 언급한 내용의 큰 의의를 발견하게 된다.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만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할 것이니라"고 한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맡고 있는 일반적인 장로들과 이 직책 외에 설교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를 구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장로직에 관하여 취급하고 있는 다른 성경본문과 이 딤후 5:17을 비교할 때 이 본문은 장로직의 발전 과정을 분명히 보여준다. 장로는 원래 교회를 다스리는 직책을 가졌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장로들의 세계 속에서 이 직분의 성격과 일치하게 가르치는 장로의 직분 곧 말씀을 봉사하는 직분이 구별되어졌다.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가르치는 일이 장로직에 생소하지 않았고, 교회의 직분의 성격상 가르치는 기능이 장로직에 관련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감독이 가르치는 활동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직분인 목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감독은 장로직과 구별된다는 하지의 주장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 감독이 원래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었다는 결론은 앞서 제시된 근거로부터 분명하다. 그러나 쏘넬이 감독의 최초의 직책은 다스리는 일이었다고 제시한 이론이 바른 것으로 생각된다.

1-2. 칼빈의 장로직 관(觀)

하지와 쏘넬 양자가 다 그들의 장로직분에 대한 이론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 근거를 칼빈에게서 호소했다. 하지는 성경에 있는 감독과 장로라는 명칭이 말씀의 종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 주장을 위해서,

반면에 쏘넬은 성정이 말하는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을 가리킨다는 그의 확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시 그러했다.

우리들이 칼빈에게서 이 문제에 대한 그의 견해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에 이 양 학자들의 호소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직분에 관한 칼빈의 이해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의 직분에 관한 이해는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긴 과정을 겪었다. 칼빈은 교회적인 면에서, 조직가로서의 큰 봉사와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의 직분에 대한 이해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의 사역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에게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해서는 안된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서 목사직분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장로직분에 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는 성경에 나타난 감독과 장로라는 직분의 명칭이 동의어라고 판단했다. 이는 감독정치와 교황권에 대항하는 중요한 입장을 선택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양 명칭이 목사직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도들과 장로, 감독 직분사이의 구별을 한 뒤 장로의 직책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말하기를 “감독은 말씀의 봉사와 성례의 집행을 위해 부름을 받아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이다. 나는 교회 봉사자들을 구별없이 감독과 장로라 부른다”고 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자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그는 곧 ‘제네바의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규정’을 작성했다. 1537년 1월 16일에 이것이 제네바시(市)의 소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권징에 대한 규정, 교회의 권위, 청소년 교육, 결혼예식의 네가지 항목이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이 ‘권징’에 관한 사항이었다. 의회를 통해 선택을 받은 이들이 시민의 생활을 감독하고, 권징을 시행하기 위해서 목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게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의 하던 일이 후에 나타난 장로들의 하는 일과 매우 유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장로로 불려지지는 않았다.

칼빈은 교회 권징을 실천함에 있어서, 교회법을 연구한 사람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가 제네바에 왔을 때에 시민생활에 권징이 거의 없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따라 권징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작성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직분에 관한 성경적 개념에 있어서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밝힌 것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우리는 그에게 있어서 장로직에 대한 어느 정도 분명한 견해를 그가 제네바에서 추방을 받은 후 제네바에 돌아 오기 전인 1541년에 발견할 수 있다. 이때 그는 ‘교회법’을 작성해서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시의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네 직분 목사, 교사, 장로, 집사가 언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칼빈이 가졌던 직분에 관한 분명한 견해와 장로 직분에 관한 분명한 언급을 볼 수 있다. 이는 실로 개혁주의 교회법의 역사에 있어 중대한 문제이다. 여기에 밝힌 장로의 직책은 각 사람의 생활을 주의하여 보고, 죄에 떨어진 자들을 친절하게 권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친근한 책망을 하기 위해 조직된 회에 보고하고, 목사들과 함께 실제로 책망하는 것이다.

여기에 분명히 1537년에 작성했던 교회 조직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1541년에 작성한 교회법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는 뚜렷한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동시에 확증하는 것은 칼빈이 목사를 위한 성경적인 칭호는 택하면서도 장로를 위한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아직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541년의 교회법이 나타난 후에 1543년 판의 기독교 강요가 다시 우리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이 1543년 판은 그가 추방을 받고 가서

생활하고 된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이루어졌음에 틀림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여기서 이제 장로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이점에서 보면 뚜렷한 발전이 있다. 그렇지만 1536년에 취한 입장과의 거리가 크게 멀지는 않았다. 칼빈은 성경에 나타난 장로와 감독이라는 두 어휘가 단지 가르치는 직분(목사)만을 가리키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그는 장로 직분의 성경적인 근거를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다.

칼빈은 감독, 장로, 목사, 종의 명칭이 성경에서 아무 구별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 이 모든 명칭들은 가르치는 직분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증거로 빌 1:1, 행 20:17, 28, 딤후 1:5, 7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칼빈은 장로직분의 성경적인 근거를 성경에 나타난 장로나 감독이란 칭호에서 발견하지 않는다. 그는 이 다스리는 장로 직분의 성경적인 근거를 롬 12:8의 “다스리는 자”(προϊσταμενος)와 고전 12:28의 “다스리는 것”(κυβερνησεις)이란 말에서 찾는다. 칼빈에 의하면, 롬 12:7과 고전 12:28이 보여주는 대로 능력, 병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등의 은사가 교회에 있었으나 항구적으로 필요한 은사는 다스리는 것과 가난한 자를 돕는 은사였다. 그래서 그는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교회중에서 택함을 입어 감독들(목사)과 함께 생활을 감독하고 권징을 시행했다고 보았다.

칼빈이 여기서 장로직분의 성경적인 근거를 직분 명칭인 장로, 목사라는 명칭에서보다 다른데서 찾으려 하면서 다른 곳에서 또 초대교회에 두 종류의 장로 곧 말씀에 수고하는 장로와 말씀에 수고하지 않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었음을 말하면서 딤후 5:17을 가리키고 있음을 발견할 때에 독자를 당황하게 한다(기독교 강요 4.11,1). 나아가 그는 가르치는 직분과 다스리는 직분은 같은 장로급에서 나왔다고도 하는 것이다(위책 4.4,1). 이로 보건대 가르치는 직분은 원래 다스리는 직분으로서의 장로직에 근거하고 있음이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실과 비교할 때 그가 주장하는 말들 사이에 일치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칼빈은 이 점에서 있어서 아직 일관된 주장을 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쨌든 이 점에서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점에 있어서 분명하지 못한 입장은 그의 성경 주석에서도 두드러진다. 로마서 이외의 책들의 주석은 대부분 그가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제네바로 돌아온 후에 쓰여졌다. 기독교 강요에서와 마찬가지로 칼빈은 그의 성경주석에서도 장로와 감독을 대부분 말씀의 종이라고 부른다. 빌 1:1의 주석에서 그는 감독을 말씀의 종이라고 한다. 그는 또 딤후 1:5의 장로라는 명칭도 그것이 감독이라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종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 행 14:23의 장로들을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감독과 동의어인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스리는 직분을 가진 자들로 이해를 한다. 그리고 딤후 5:17절의 주석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장로들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성경 장·절에 대한 칼빈의 주해는 독자로서 하여금 상호관계에 있어서 매우 분명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전체를 개관할 때 칼빈이 다스리는 장로 직분에 대한 성경적 기원에 대해 선명한 입장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 그는 감독과 장로가 같은 직임을 가르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종종 이것을 계속 주장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이다. 감독은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진다. 이따금 장로에 관해서도 이렇게 언급이 된다. 그런데 다시 우리는 두 종류의 장로들에 관하여 듣게 된다.

일반적으로 칼빈에게 있어서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나 주석에서 장로와 감독이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강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를 개관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

다. 감독과 동일한 장로는 원래 가르치는 직분을 가졌다. 후에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탁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탄 집단을 형성하지 않고 기존 집단(곧, 감독 즉, 장로 집단)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칼빈에게서 다스리는 장로직분의 성경적 기원에 대한 선명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칼빈의 이런 애매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어떤 사람들은 칼빈에게 있어서 이론이 실천을 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 이를 설명하려고 한다. 곧 칼빈은 실질적 필요를 따라 장로를 세우고 난 후, 성경에서 이에 대한 이론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다. 칼빈은 그가 처한 구체적인 교회 환경을 고려하고 그가 보는 어려움의 해결을 지속적인 성경연구와 교부들의 연구에서 찾았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론과 실천은 병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칼빈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설교 곧 말씀의 선포를 위한 직분의 회복에 특별한 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복음의 선포가 없고, 성경적 교리를 위한 직분적 활동이 사라진 로마의 교권주의와 성체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그의 사고의 발전이 성경에 감독과 장로는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들로 보아야 한다는 확신으로 시작되었고, 이 확신이 그의 생각을 계속 지배 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정치가 가르치는 일과 설교에 비교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양자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근거해서 다스리는 직분을 세우게 되었고, 이 직분에 장로세계의 자리를 주었다. 바우만이 말한 바와같이 칼빈은 신약에 가르친 직분이요, 로마교회를 통해 성격이 변질된 장로 직분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이것으로 칼빈이 이 장로 직분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성공했는지에 대한 비판적 물음에는 답이 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하여는 부정적

인 답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지가 “성경에서, 장로는 단지 가르치는 직분만을 가리킨다”는 그의 주장을 위해 칼빈에게 호소한 것이 잘못되었고, 쏬넬도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장로의 직분은 기능에 있어서만 목사의 직분과 다르다는 그의 주장을 위해 칼빈에게 호소한 것이 옳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게된다. 이들은 칼빈에게 호소하기 전에 그의 직분관에 대한 발전 과정을 먼저 살펴 보아야 했었다.

우리는 여기서 칼빈에게서 알게 된 분명하지 못한 입장이 후 시대에 직분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갖게된 단서가 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웨스트민스터 정치와 장로직

하지와 쏬넬은 장로직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그들의 개념의 정당성을 위해서 칼빈에게 호소할 뿐 아니라 미 장로교회의 정치에도 호소했다. 하지에 의하면 장로교 정치는 말씀의 종만을 감독 혹은 장로라 부르고 다스리는 장로는 단지 정치로 지적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쏬넬은 교회의 정치가 직접은 아니고 간접으로 장로라는 명칭을 다스리는 직분에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회 정치가 말씀의 종을 장로라 부르고 있는데, 이는 그가 교회를 다스리는데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쏬넬은 또한 그 교회 정치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 장·절인 딤후 5:17을 지적한다. 동일한 성경구절이 다스리는 장로직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장로라는 명칭은 말씀의 종을 위한 동의어는 아니나 다스리는 직분을 위한 동의어가 된다는 것이다.

이 의견의 불일치를 취급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양자가 그들의 신념을 위하여 장로 교회안에 권위를 가진 문서로서 ‘교회정치’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정치가 있어

서, 이들 양 신학자들이 속한 교회가 교회정치를 위한 표준문서로서 공통적으로 받은 기본문서를 살펴 보아야 한다. 나아가 최후의 결정적인 말은 성경이 주게 될 것이다. 이는 웨스트민스턴 신앙고백 1장 1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 “모든 종교적 논쟁을 결정하고 교회회의의 모든 결정과, 고대학자들의 의견과, 인간의 교훈과, 개인의 정신문제를 감독하고 판단하시는 최고 심판자는 성경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외에는 아무도 없다”

결과적으로 ‘장로교 정치’의 연구는 양자 모두 이 문서에 호소함으로써 부분적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실상 교회정치의 올바른 해석 문제에 있어서 일찌기 혼돈이 일어났다. 그 혼돈은 이 점에 있어서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관한 배경이 먼저 연구 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정치’의 전역사의 연구로 이끌게 된다. 이 연구를 하게 될 때 이를 근거로 이 ‘교회정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장로교정치 조례는 웨스트민스터 대회(1643-1649)가 작성한 교회 정치에 근거를 하고 있다. 미 장로교회 첫 총회는 17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 요리문답을 약간의 수정만 하고 받았다. 그리고 1788년에 그 총회는 정치의 안과 권징조례를 충분히 다루고, 그 결과 이것들을 이 장로교회 헌법으로 받아 들였다. 이 정치는 부분적으로 미국교회의 환경에 어느정도 적용한 것이었으나 그 원리는 웨스트민스터 정치와 일치했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미 장로교회의 정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치가 직분에 관하여 취하게 된 입장에 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제일 먼저 관심을 끄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다스리는 장로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으로 (jus divinum) 확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제 대회의 신학자들이 장로의 직분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취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서로 일치점에 이르렀는지를 가능한 한 간단히 살펴 보려 한다.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1643년에 6월에 앞으로 영국교회의 개혁에 관한 자문을 주기 위해서 영국의회에 의해 소집되었다. 회의 의사일정에는 새 예배의식, 권징, 교회정치가 있었다. 최초에는 신앙고백 작성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속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교회의 교리는 건전한 개혁주의 입장에서 있었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정치에 관하여는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다.

당시 다음과 같은 상이한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있었다. 먼저 고교회주의(High Churchism) 견해를 가진 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토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둘째로 독립교회주의자들이 있었다. 여기에 속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 Thomas Goodwin, Philip Nye, Sidrach Simpson, Jeremiah Burroughs, William Bridge, William Carter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에라스티안 주의자들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단지 두 신학자 John Lightfoot, Thomas Coleman이 속했었다. 이들은 법학자 John Selddon의 지지를 크게 얻었다. 넷째 집단으로는 장로 정치제도와 감독 정치제도의 요소를 다 수용하는 정치체제를 선호하는 이들로 이루어졌다. 이 집단에는 William Twisse, Thomas Gataker, Herbert Palmer, Thomas Temple 등이 속했다. 마지막 다섯째로는 가장 큰 집단으로 장로 정치제도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뛰어난 인물로서는 Lazarus Seaman, Charles Herle, Richard Vines, 스코틀랜드교회로부터 파송되어 온 이들이 자문원으로서 이 집단에 속하여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자문의원들 가운데 Robert Baillie, George Gillespie, Alexander Henderson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형편을 보건대 아무 의견의 충돌이나, 어떤 종류의 협상도 없이 교회 정치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대회의 신학자들의 다수가 장로정치를 찬동하는 이들이었으

나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의 사람들과 분열을 원하지 않는 한 자기들의 의견을 그대로 강행해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협상이 불가피했다. 스코틀란드에서 온 자문위원들이 가능한 한 중간 입장을 취하고 모든 집단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혹은 적어도 다수의 찬동을 얻을 수 있는 길로 해결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장로 직분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서로의 적응과 협상이 불가피했다.

이 문제에 관하여 1643년 11월 22일에 토론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은 다음과 같았다. “잘 다스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외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다스리는 일에 전념하는 다른 장로들이 있다. 이를 위해 딤편 5:17, 롬 12:8, 고전 12:28이 성경적인 증거로써 제시되었다. 그런데 딤편 5:17의 장로에 관하여는 의견이 첨예하게 서로 대립되었다. 어떤 이는 이를 시민적 정치 인물로 보았다. Herle와 Vines는 이를 단지 설교하는 장로(Preaching Elder)로 생각했다. Seamen은 두 종류의 장로들 곧, 잘 다스리는 장로와 잘 다스릴 뿐 아니라 말씀에 수고하는 장로로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 Vines, Temple, Coleman, Palmer와 Burgess같은 이들은 장로직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의견에 반대를 했다. 이에 대항하여 Seamen, Bayly, Young과 스코틀란드의 자문의원들과 독립교회주의자들은 이 직분의 신적 제정을 옹호했다. 영국의 장로정치제도 옹호자들은 서로 나뉘어졌다. 이들은 스코틀란드 사람들보다 매우 약한 입장을 취했다. 이때에 주도적인 장로주의 신학자들인 Vines, Temple, Palmer 같은 이들이 심지어 에라스티안주의자들과 함께 장로직의 신적 제정에 대해 반대하였음을 보게 된다. 에라스티안주의자들의 반대는 이해할만하다. 국교회를 지지하는 이들의 사상은 다스리는 장로에 대한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장로회주의의 교회 정치는 장로직분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약 10일 동안 이 문제에 관하여 토론했으나 이 문제에 관하여 어

면 결론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대회는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연구하고 조정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12월 8일에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

1.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정치와 교회적인 치리자들을 세우셨다.
2. 그리스도는 이 교회 안에 어떤 분에게는 정치를 위한 은사를 주셨고, 이를 위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를 수행할 사명을 주셨다.
3. 말씀의 종들 외에 어떤 다른이들, 혹은 교회 치리자들이 교회 정치에 말씀의 종들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일이고 말씀이 보증하는 일이다(롬 12:7, 8, 고전 12:8).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장로직분의 신적 제정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성구인 딤편 5:17이 제외된 것이다.

성경의 증명에 관하여 오랜 토론이 있었으나 이 제안에 끝까지 반대를 한 Temple과 Lightfoot를 제하고는 전(前)대회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상이한 의견을 가진 여러 집단 사이의 협상이라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장로의 직분이 신적인 제정이라고 선포한 언어로 언급되지 않고 단지 성경적으로 보증된 직분이라고만 일컬어지게 되었다. 스코틀란드의 강한 장로회주의자인 Henderson도 ‘쌍방이 인정하는 일반적인 언어’로 만족하여야 했다. J.R. de Witt도 이 대회는 이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신권(jus divinum)을 확증함에 이르지 못했고 장로직이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제정이라고 대부분 확신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 장로직분에 관하여 “성경에 일치하고 성경이 보증한다”는 것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후에 ‘교회정치에 관한 안’과 대회가 받은 최후의 공식적인 문서(1644년 11, 12월)에는 어느정도 수정이 가해졌고 좀 더 멀리 나아가게 되었다:

“유대인들의 교회에 교회 정치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연

합한 장로들이 있었음과 같이(대하 19:8, 9, 10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교회안에 정치와 교회적인 치리자를 세우신 그리스도는 말씀의 종들 외에 그의 교회안에 어떤 분들에게, 다스리기 위한 은사와 이를 위해 부름을 받을 때에 이를 수행할 사명을 주셨다. 이들이 교회 정치에 목사들과 연합하게 되는데(롬 12:7, 8; 고전 12:28)이 직분자들을 개혁교회는 일반적으로 장로라 부른다”

여기에 원리적으로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여기에서도 또, 딤편 5:17의 성경 장·절이 제외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장로의 직분을 성경으로부터의 감독이나 장로에게서 발견하지 않은 것이다.

일찌기, 미 장로교회의 정치 조례는 이미 언급한 대로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직분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미 장로교회의 정치와 웨스트민스터의 그것과를 비교할 때 원리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그 정치에서 여러가지 드러난 직분의 명칭들 감독, 목사, 종, 장로, 사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등이 모두 목사에게만 돌려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장로들은 단순히 ‘백성의 대표’라 일컬어지고 있으며, 성경적인 명칭으로서는 ‘다스리는 것’으로만 지적되고 있다. 한국 장로교회의 정치 제 5, 6장도, 장로에 관하여 거의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려파 장로교회가 1992년에 수정해서 받은 교회정치에서도 원리적인 면에서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한다.

미 장로교회 정치는 웨스트민스터의 그것과 비교할 때 아무런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장로 직분의 신적 제정에 대한 것이 오히려 더 불분명하게 보일 뿐 아니라 장로가 백성의 대표라는 표현이 더욱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로직분에 대한 이 개념은 아마도 회중교회주의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찌기 식민시대에 미주에는 장로정치제도와 회중교회 정치제도가 혼합된 체제를 갖춘 적이 있었다. 이는 1801년에 장로교회와 회중교회가 한번 합동을 한 그 결과에서 온 것이었다. 이 때의 교회 정치체제를 사람들은 “장로교적 회중체제(Presbygational, 혹은 Congreterial System)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이미 장로교회 정치에는 딤편 5:17이 장로직의 증거로서 더 첨가된 것 뿐이었다. 그러나 공식문서는 웨스트민스터의 그것보다 더욱 분명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얻게되는 결론은 하지와 쏘넬 양 신학자들은 그들의 교회정치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았어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했다면 이들은 그 정치 조례의 불분명한 입장때문에 성경을 더 살피게 되었을 것이요 성경에서 일치점을 서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칼빈의 경우에서처럼 교회정치의 연구가 우리들을 성경으로 인도한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인 연구에서 얻지 못한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된다. 감독(장로)은 성경에 의하면 교회에서 원래 다스리는 직책을 가졌었다. 여기에 ‘다스리는 장로직’의 기원이 있으며, 또한 ‘가르치는 장로직의 기원’도 있다.

3. 장로세계의 동등권

찰스 하지는 목사의 직분을 교회의 최고 직분으로 보았다. 그는 이 직분에 특수한 성격과 특권을 돌리고 있다. 곧 그는 성직자에 속한 목사와 구별하여 장로를 평신도로 본다. 목사직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직분이며 항존성과 보편성을 가진다. 이와는 달리 장로직은 목사 직보다 낮은 지위에 속한다. 이 직분의 특성은 교회 회중의 권(權)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인정하신다는 데 있다. 나아가, 하지는 장로회 정치제도를 목사가 중심이 되는 지역 감독정치체도로 보았다. ‘권위와 유효성에 있어서 교회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교회 정치에 나타난 표현에 언급했다.

쏘넬은 이 견해를 거절하고 목사와 장로의 동권을 옹호한다. 그의 주요 사상은, 모든 교회의 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기관에 불과하며 이 기관을 통하여 교회의 삶이 치리와 말씀선포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그는 직분들 사

이의 계급을 부인하고 직책의 구별만을 인정한다.

4-1. 정치체제에 나타난 목사직의 표현에 대한 부당성

하지가 직분간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한 가장 큰 근거는 성경으로부터 그것을 설명해보려 노력도 하지만 결국 교회정치에 나타난 표현에서 오게 된다. 교회정치는 목사 직분에 관하여 “목사의 직분은 권위와 유효성에 있어서 교회에서 제일이다”라고 하고, 장로에 관하여는 단지 ‘교인들의 대표’라고 표현하고 있다.

앞선 연구에서 미 장로교 정치는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받은 그것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회는 목사와 장로의 직분의 성경적인 직분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직분은 평등하지 않다는데 강조를 두게 되는 단서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양 정치를 비교해 볼 때에 미 장로교회의 정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목사, 장로 양 직분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매우 유연한 표현을 하고 있다. 목사에 관하여는 “목사는 복음의 시대에 예언하는 교회에 일반적이고 항존적인 직분자이고” 장로는 “교회안의 교회적 치리지들”이라고 말하게 된다. 여기에는 직분자들 간에 아무런 분명한 계급적인 개념이 나타나 있지 않다. 목사와 장로가 다 ‘다스리는 직분자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웨스트민스터대회는 양 직분자들에게 노회와 총회에서의 동권(同權)을 인정한다.

교회정치는 목사직분을 표현함에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면을 보인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딤후 5:17)는 교회에서 가장 광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있는 직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견해가 직분세계의 계급제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직분은 주께서 그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수단이 된다. 모든 직분은 교회안에 자기의 고유한 직책과 자리를 받았

다. 이것이 결코 주께서 교회안에 계급제도의 곧 교권체제를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회정치는 롬 11:13을 증거로서 제시한다. 바울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고 한다. 사도는 여기서 확실히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복음선포의 사역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 그는 신실하게 이방인 중에 일할 때에 복음이 영광스럽게 빛을 나타낼 것이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권을 얻게될 것임을 믿고 있다. 그래서 사도는 그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직분자로서 자신을 다른 직분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목사에게 위탁된 말씀의 봉사가 ‘가치와 유효성에 있어서 첫째’라고 결론 지을 수 없다. 모든 직분자들 곧, 장로는 다스리고 감독하는 일에서, 집사는 구제하는 일에서 자기 직책을 따라 그의 봉사의 영광을 즐기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각 직분은 각기 자기 고유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봉사를 하고 있다.

하지가 교회정치로부터의 이런 근거에서 직분자 세계의 계급제도를 합리화시키려 한 것은 호소력이 없다. 북장로교회의 전통을 이어오는 미연합 장로교회는 목사에 대한 지난 날의 표현을 오늘도 그대로 견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 정통장로교회(O.P.C.)와 미 장로교회(P.C.A)는 수정된 교회정치에서 목사에게만 적용하던 표현(the first in dignity and usefulness)을 없애고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하고 장로직 일반에 대하여 “이 직분은 권위있고 유용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Chapter 8:1, The Book of Church Order of the Presbyterianh Church in America).

4-2. 성경의 증거에 대한 하지의 호소

하지는 목사, 장로, 집사들 사이의 가치와 유용성에 있어서의 서열을 주장했다. 그가 이를 주장한 가장 강력한 근거는 성경에 나타나는 장로나 감독이 말씀의 봉사자를 가리킨다는 것이었다. 이 논지의 근거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루었다. 장로와 감독은 동의어로서 원래 다스리는 직임을 가리켰다.

이제 하지가 제시하는 다른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서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자.

먼저 그에 의하면, 교회에는 설교의 직분 이상 더 고상한 직책이 없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직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직분에 높고, 낮은 이념 자체를 작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성경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정당성도 단서도 부여하지 않는다.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직분이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음은 사실이다. 그래서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롬 10:15) 말하고, 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고 한다(딤후 5:17). 말씀에 봉사하는 직분자들은 광범한 직분적 활동영역을 가진다. 그런고로 사도는 이들을 존경하라고 한다. 그러나 광범한 직분적 영역을 가졌다든가 어떤 면으로 더 존경 받을 직책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다른 직분보다 높은 직분이라는 사실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 교회 안의 각 직분은 주의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다. 교회 안의 각 직분은 그리스도의 직분적 사역을 수종들 따름이다. 그러므로 ‘높고, 낮은’이라는 직분 개념은 합당하지 않으며 교권체제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칼빈이 말씀의 중도 다른 사람들처럼 흠으로 빚어진 보잘것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고 한 말은 여기서 매우 인상적이다. 그는 “이 사람이 어떤 점으로도 우리보다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으로 배우자”라고 한다(4:3, 1).

다음으로, 하지는 말씀의 봉사의 직분은 그것이 제정된 후에 중단된 일이 없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직분은 최고의 직분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 주장이 역사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장인지 의심을 제기하게 된다. 말씀의 종의 직분의 성격이 다른 직분과는 달리 지난날의 역사에서 그의 성격을 지켜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답할 수 밖에 없다. 칼빈이 그의 기독교강요 제4권 5장에서 로마교회의 직분의 변질에 관하여 예리하게 밝힌 사실에 근거함으로 만족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감독들은 목자직분을 알지 못했고 단지 사도들의 후계자임을 자랑했다.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말씀의 봉사가 사라졌다. 장로의 직분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변해 버렸다. 집사직의 본래의 성격도 사라졌다. 집사직은 다른 직분에 예속되고 특수한 예식을 행하는 일에 수종들게 되었다. 비록 주께서 이런 오류와 타락속에서 그의 교회를 보존하셨지만 모든 직분은 그 본래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주께서 그의 때에 그의 종을 통하여 그의 교회를 개혁하시고 직분을 회복시키셨다.

우리는 이에 대한 본을 제네바 교회에서 보게 된다. 개혁으로 말미암아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말씀의 봉사의 직분도 회복되었다. 이 직분의 회복으로 16세기의 개혁이 대단히 강력하게 나타났다. 그런고로 말씀의 봉사의 직분이 중단없이 지난날의 역사에서 계속되어 왔다는 근거에서 그 직분이 제일 높은 직분이라고 하지가 주장한 것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논리이다.

셋째로, 하지는 직분의 계속을 위해 말씀의 종의 직분만을 위해 그 자격이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이미 우리가 거절한 바 있는 성경에 나타난 장로와 감독은 말씀의 종만을 가리킨다는 견해로부터 온다. 감독을 위한 자격이 딤후 3:2-7과 딤후

1:6-9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장로와 감독이 동의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위의 장·절에 언급한 자격은 말씀의 봉사의 종인 목사와 다스리는 종인 장로, 양자를 위한 자격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끝으로 하지는 말씀의 종의 위치를 디모데와 디도와 같이 생각하고 목사에게 디모데와 디도가 가졌던 같은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목사직을 보편적인 직분으로 본다.

여기서 우리는 하지가 신약의 구원사에서 전도자들의 특별한 위치를 보지 못했음을 지적하게 된다(딤후 4:5). 디모데나 디도 같은 전도자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교회의 직분을 갖지 않았다. 이들은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터를 놓는데 협력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고대교회에서 '사도적인 인물들'(Tertullianus), '사도들의 아들들'(Hieronimus), 혹은 '사도들과 거의 같은, 사도들의 대리'(Augustinus)라고 불려졌다. H. Bavinck, C. Bouma와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다 이들을 이와 같이 보고 있다. 말씀의 종이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전도자들이 직접적인 계승자들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지가 목사직을 이런 전도자들과 같이 봄으로 이들이 교회의 최고 직분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3. 직분자들의 동권

하지는 교회의 세 직분을 교권적인 차원에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쏘넬은 직분자들 상호간의 동권을 주장했다. 여기서 쏘넬의 주장이 성경의 원리에 더 가깝기는 하지만 그에도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그는 직분을 교회의 생명이 표출하게 되는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동등권을 주장했다. 곧, 그에 의하면 목사는 교회의 입이요, 장로는 교회의 손이라는 것이다. 직분이 교회적인 봉사인 것은 사실이다. 직분이 교회를 위해 있고, 교회에 주어졌던 것이다. 직분은 교회의 종이

라고 일컬어진다(고후 4:5, 골 1:25). 그렇지만 직분을 단순히 교회의 수단으로 볼 수는 없다.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소명의 구별은 있으나 직분자들의 동등권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인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종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거해서 주장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가 직분자로 기름부음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시다. 그는 사도라고도 불려지고 있다(히 3:1). 그는 삼중직을 가진 직분자로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는 땅위에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였다(요 19:30). 그리고 그는 승천하셨다. 그렇지만 그는 하늘에서도 우리들의 큰 선지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며,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는 하늘에서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며, 돌보시고 계신다. 그는 그가 세운 직분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지상에 있는 그의 교회를 위하여 그의 직분적인 사역을 계속해 가신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직분적인 수단을 통하지 않고도 그의 백성을 권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위해서 인간의 봉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들이 역사세계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을 분명하게 추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사도적인 말씀을 잘 살필 때에 어느 정도 그가 해 가시는 길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직분 발전의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계획의 전개를 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적 사역의 진전을 보게 된다. 카이퍼가 말한대로 그는 하늘에 계시지 마는 "교회는 예수께서 순간이라도 교회 밖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없다."

주께서 이 땅 위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자비를 나타내기 위한 사명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어 내어 보내셨다(눅 9:1-2, 10:9). 그의 부활 후에 그는 아버지가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사도들을 교회의 터를 놓기 위해 보내셨다. 그리스도는 요 20:21에서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사도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던 것처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들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셨다(행 5:41, 42).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그의 삼중직을 사도들의 방편을 통하여 수행하셨다. 복음의 전파, 자비의 사역, 교회의 치리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였다. 주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더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직분적인 활동을 어려서들에게 맡기게 되셨는지를 보게 된다. 여기 직분의 분화가 생기게 된다. 우리는 원리적으로 자비의 봉사직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세워졌는지를 행 4:1에서 보게 되며 교회의 치리가 장로(감독)들에게 어떻게 맡겨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된다. (행 11:30, 14:23).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자비의 봉사를 수행하는 이들이 ‘집사’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과 (빌 1:1, 딤후 3) 말씀의 전파가 장로들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를 특별히 받은 자들에게 맡겨지게 된 사실을 보게된다(딤후 5:17, 계 1:20). 직분설립의 역사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교회에 역사하신 것이다. 그는 교회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삼중직을 이행해 가고 계신다.

이 직분들은 상호 대치관계에 서 있지 않다. 이들은 교권적인 서열로 되어 있지 않고, 각 직분자는 그의 고유한 자리에서 그 직분자이신 그리스도를 봉사하고 있다. 바빙크는 그의 교의학책 중 교회정치에 관한 부분을 이런 아름다운 말로써 마치고 있다; “그는 가르치는 직분을 통하여 가르치고, 장로직분을 통하여 인도하며, 집사직분을 통하여 그의 양무리를 돌보신다. 그리고 그는 이들 세 직분을 통하여 우리들의 최고의 선지자이시고, 우리들의 왕이시며, 우리들의 자비스러운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신다”(Gereformeerde Dogmatiek vol.

4. 371).

우리가 그의 삼직에서 높고 낮은, 직분의 구별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교회직분에 있어서 어떤 교권적 서열을 생각할 수 없다. 하나의 직분이 다른 직분 위에 있지 않다. 직분들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한 직분을 봉사하고 있다. 교회직분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나, 현실적인 교회 생활에 있어서 어떤 교권적인 원리도 배제되어야 한다.

하지는 교회의 직분들에 관하여 그가 서열을 주장했을 때에 성경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다. 직분의 봉사적인 성격을 그는 간과 하였었다. 쏘넬 역시 목사 장로의 동권을 주장했으나, 직분이 교회의 한 수단이라고 봄으로 직분의 봉사적 성격에 관하여 바른 해석을 주지 못했다. 예를 들면, 설교에서는 교회가 종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이 교회에 맡겨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딤후 3:15), 목사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할 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입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4-4. 교구감독

하지는 장로교 정치제도를 교구감독 정치제도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에서 말씀의 종의 직분을 다른 직분들보다 높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어떤 분들은 목회서신에 전제적 감독제도에 대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거기 감독이란 말이 단수로 언급되고 있는 까닭이라는 것이다(딤후 3:2, 딤후 1:7). 그러나 여기 사용된 단수가 수와 관계되어 있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 단수는 하나의 유개념(類概念)을 나타낼 따름이다. 감독에 대한 요구조건이 나열된 본문에 감독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이유에서이다.

전제적 감독정치에 반대하는 근거를 성경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찾

을 수 있다.

첫째, 성경에서 우리는 세 직분이 나란히 있고 거기에 감독의 직분이 다른 직분위에 드러나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성경에서 몇곳에 감독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으나 감독이 장로와 함께 언급되어 있는 곳을 보지 못한다. 빌 1:1에 감독은 언급되어 있으나 장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딤후전 1:3-7에 사도는 감독의 직분을 위한 요구조건을 말하나, 장로에 관하여는 여러번 언급을 하면서도 그 자격을 위한 요건들은 말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감독과 장로란 같은 직분을 가리키고 있음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도시대의 교회에서의 장로와 감독이 복수로 발견된다(행 20:17, 28, 빌 1:1, 행 14:23).

전제적 감독정치제도를 위해서 어떤 이는 계시록 1-3장의 '교회의 사자'라는 말을 지적한다. 여기에서 한 지역교회에 관하여 말할 때 마다 '교회의 사자'를 단수로 말하고 있다(계 2:1, 8, 12, 3:1, 7, 14). 복수는 단지 일곱 교회에 관하여 언급할 때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교회의 일인 감독체제를 말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한 지역교회는 그 교회의 주소의 열할을 하는 한 사자를 갖는다. Grijdnaus에 의하며, '사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자이다. 이 사자는 교권적인 의미에서 교회 위에 서 있지 않다. 교회가 사자에게 복종하도록 요청을 받지 않고 사자와 교회가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계 2:7). 계시록에 사용된 이 단수는 일인 감독정치에 대한 어떤 암시를 주고 있지 않다.

일인 감독정치는 장로(감독) 중의 한 사람이 '유일한 감독'으로 자기 동료 직분자들 위에 군림하게 되었던 곳에서 처음으로 발견된다. 이런 발전을 우리는 사도시대 후에 이나티우스와 폴리갑에게서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다. 이로써 성경적인 직분의 동권이 손상을 당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역사 과정에서 주의 교회는 많은 해를 입게 되

었다. 그러므로 장로교 정치제도가 교구의 감독 정치제도라고 하는 하지의 사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교회의 대표

교회정치에 장로가 '교회의 대표'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와 쏘넬이 대표라는 말의 해석에 있어서는 서로 약간 차이를 보였을 지라도 이를 세속적인 정치이념의 차원에서 해석한 것에 있어서는 서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전자에 의하면, 모든 신자들은 성령이 그들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 정치의 본질적인 부분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교구 감독정치제도의 이념때문에 교권세력에 대한 평형을 이루는 민주주의 방향에서만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작은 교회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다 교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대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민주적 원리를 따라 장로가 '교회의 대표'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했다. 후자는 이 민주주의적인 해석을 거절한다. 장로는 결코 신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 모든 교회의 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다. 교회정치는 교회가 그의 삶을 실현하는 형식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그도 결국 전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방향에서 '교회의 대표'란 말에 대한 해석을 주고 있다. 그는 극단적인 민주정치와 비교해서는 약간 전진된 의회체제의 범주에서 이 말을 이해하기 원한다. '교회의 대표'는 대리자가 아니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택함받은 처리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중들과 장로들은 의회정치에 있어서 상원과 하원에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분은 모두 세속적인 민주 정치 차원에서, 교회의 대표라는 장로 직분을 이해하였다.

6. '교회의 대표'라는 표현의 부당성

문제되고 있는 이 표현은 의심할 것 없이 세속적인 정치이념에서 취해졌다. 세속영역으로부터의 어휘가 교회적인 직분에 적용된 것이다. 이는 교회직분의 고유한 성격에 쉽게 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표현은 교회영역에서 사용되어온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은 '웨스트민스터 장로회 정치'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당시의 의회와 에라스티안주의자들에 의한 영향을 입었지만 장로에 대하여는 이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비록 장로, 감독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교회안에 교회적인 치리자'로 조심스럽게 표현되었었다. 다른 개혁주의 교회들의 교회정치에도 장로에 대한 이런 표현은 발견되지 않는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치리직분의 표현을 단순히 "목자적 사역을 행하지 않는 장로가 다스리는 장로라 불려진다"고 하고 있다.

이 두 위대한 장로교 신학자들이 이 표현을 아무 거부감없이 사용하고 거기에 독특한 해석을 붙인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17세기 미국에서 회중교회와 장로교회가 혼합되었던 때가 있었음을 주목하게 된다. 회중교회 안에서는 신자들의 주권사상이 계속 큰 영향을 끼쳤다. 이 교회에 있어서 직분자들은 단지 신자들의 뜻을 시행하기 위한 평신도 대표들이 있었다. 이 평신도 대표들은 분명히 성경에 근거된 직분이 아니었다. 이들은 단순히 교회의 대표자들이었다. 여기 세속적인 정치풍토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 영향이 후일의 미 장로교회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증명할 수는 없으나 그 영향은 충분히 짐작이 된다. 고신파 장로교회가 수정하여 받은 (1992)교회정치에도 장로에 대하여 "교인의 대표인 장로"라고 표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28조).

7-1. 장로의 대표적인 성격

시민정치적인 내용을 가진 '백성의 대표자'라는 표현은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 장로는 결단코, 민주주의 개념에 기초한 백성의 대표자가 아니다. 장로는 또한, 쏘넬의 견해대로 공화국 체제에 있어서의 '택함 받는 치리자'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민주주의 범주에 속한 개념을 가진 어휘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다. 모든 교회의 직분적 권위와 그 권위의 행사는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으며,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백성의 대표'라는 말을 거부하는 것이 장로직분에 교회의 대표로서의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장로는 교회에서 나오고, 교회에 속해 있으며,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직분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의 치리자로서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직분은 분명히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 장로는 그의 동료 장로들과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들과 유리된 자리에 있지 않다. 치리회인 당회를 통하여 장로직의 대표적인 성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전체로서의 당회는 교회를 대표한다. 그래서 칼빈은 당회의 판단을 교회의 판단으로 간주했다.¹⁾ 이를 위해서 그는 마 18:15, 17을 지적하되 특별히 권면을 해도 범죄하는 형제가 끝내 듣지 않을 때에 "교회에 말하라"는 명령을 언급하고 있다. 칼빈은 그의 이 부분의 성경주석에서 그리스도께서 아직 조직된 교회가 없었을 때에 이 법을 주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권이 전 교회를 대표했던 장로들에게 있었다. 포로기 후에는 산헤드린²⁾이 이 기능을 행사했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말하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때의 산헤드린이 비록 잘못된

1. 기독교 강요, IV, 12, 2.

기구였지만은 그는 현존질서를 인정하신 것이다. 부패요소가 교회에서 제거되었을 때에 그 질서는 그대로 존속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장로가 민주주의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대표자라는 견해와는 원리적으로 다르다. 장로는 결단코 백성들(회중)의 뜻을 시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을 시행하는 자들이다. 장로가 비록 회중의 선택이란 방편을 통하여 부름을 받았지만, 이런 방편으로 그 직분으로 부르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칼빈은 “법적인 부름의 질서를 따라 감독자들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명이 된다”²⁾ 고 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모든 경건한 말씀의 종들은 사도들처럼 사람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봉사에 부름을 받는다”³⁾ 고 주장했다. 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면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돌본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장로들의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대표하게 된다.

7-2. 교회 정치와 세상 정치간의 본질적 구별

하지와 쏘넬 양자 모두가 교회의 정치와 세상의 정치, 교회의 직분과 세상의 직분을 비교할 뿐 아니라, 이들이 교회의 정치와 직분의 성격과 기능을 세상의 정치와 직분의 성격과 기능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 둘을 원리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같이 하는 것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며, 힘을 얻게되는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 엡 1:23)인 주의 교회에 관하여 성경에 주어진 계시를 바르게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록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교회는 자기의 고유한 기원과 본질과 활동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⁴⁾ 교회는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나 인

2. *ibid.* IV, 3, 14.

3. *ibid.* IV, 3, 13.

4. H. Bavinck, *Geref. Dog.* IV. 518.

간의 산물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교회의 법 역시 인간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다. 우리는 재세례파가 주장하는 교회와 세상과의 대치관념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구별한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하신 말씀을 따라 세상의 직분과 교회의 직분을 구별한다(마 20:20-27). 이 말씀은 뚜렷한 구별을 주고 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권세를 부리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벧전 5:3). 교회의 직분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자들이다.

이 구별은 교회의 정치와 세상의 정치 사이에는 어떤 비교도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한 뜻으로 비교할 수 있다. 칼빈은 교회의 장로들의 회의가 시의회와 유사하다고 한다.⁵⁾ 그러나 동시에 그는 다른 곳에서 세속적인 정치와 교회의 정치를 비교할 때에 그 구별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⁶⁾ 칼빈의 개혁에서 나오게 된 고백과 의식 문서에는 어휘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구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 구별을 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은 역사 과정에서 세상정치의 형식과 방법은 바뀌고 변화하지만 교회의 정치는 신권(Jus Divinum)으로 우리들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장로 직분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든지, 장로들을 의회 의원이나 하원 의원의 위치에 둔다면 교회 정치를 성경에 계시된 신권으로 볼 수 없게 된다.

5. *ibid.* IV, 11, 6.

6. *ibid.* IV, 11, 1.

그런고로 우리들의 결론은 장로회정치를 특수한 세상의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설명하기 위한 양 신학자들의 노력은 잘못되었고, 교회정치의 신권을 바르게 다루지 못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7-3. 직분간의 대치관계의 부당성

하지는 말씀의 종인 목사와 장로간의 구별을 예리하게 만들고 양자를 대치관계에 둔다. 말씀의 종은 신권을 따른 성직자이나 백성의 대표자로서의 장로는 백성에게 속하고 평신도이며, 그의 소명은 백성의 유익을 돌보는 것이다. 이런 대치관계의 이념은 개혁주의 영적 지도자들이 당연히 거절했던 것이고, 이런 거절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 당연했던 것이다.

칼빈은 일찌기 교회사 과정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은 오류에서 생겼음을 지적했다.⁷⁾ 성직자를 가리키는 말 'clerus'는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신자인 전 회중을 'God's heritage'라고 불렀다(벧전 5:3). 그러나 이 말이 차츰 교회 안의 제한된 일부 사람을 지칭하게 되었다. 고대 교회에서 장차 교회의 직분을 맡기를 원하는 소년들이 그 준비를 위해 감독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을 받는 자들이 모두 'clerici'라 불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잘못된 개념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교회직분을 입게 된 자들의 명칭이 되었고 'clerus'로서의 이 직분자들은 교회와 전적으로 구별이 되고 교회 회중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 이 이름과는 대치적으로 'laikos'(layman, 俗人)라는 말은 백성(laos)에 속하는 자들이다. 칼빈은 이 구별을 원리적으로 거절했다. 이는 그 구별이 오류에서 생긴 것이고, 사도적인 전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이 어휘(clerus)를 전적으로 버리지는 않고 그

7. Clavin, IV, 4. 9., IV, 10, 7., IV, 17, 47.

의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 안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자들을 위한 통상적인 명칭으로서 사용했다.

칼빈은 그의 시대에 이와 같은 잘못된 내용을 가진 어휘들을 전적으로 폐기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칼빈의 종교개혁이 어휘상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순화작업을 하지 못한 것이 유감으로 생각된다. 이 어휘로 말미암아 그릇된 개념이 영향을 끼치게 될 위험이 있게 된 것이다. George Gillespie는 성직자(clerus)와 평신도 혹은 속인(layman)의 구별을 로마교적이요, 반 기독교적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이 구별이 교회안에 나타난 온갖 잘못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⁸⁾ 하지에게 있어서의 이 구별에 대한 쏘넬의 비판은 매우 정당하였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런 대치관계의 개념을 통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clerus'라는 말을 주의 유산(the heritage of the Lord)의 뜻으로 생각할 때에 직분자들과 일반 신자들 모두가 다 clerus에 속한다. 이 양자는 또한 다 같이 하다님의 백성(laos)에 속한다.⁹⁾ 이와 같은 어휘들이 결코 교회 안에 분열을 조성하게 해서는 안된다. 모든 신자들은 다윗과 함께 "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시 16:5). 성경에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롬 1:7),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고전 1:2),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 2:9)으로 불려지고 있다.

8. George Gillespie, *Notes of Debates and Proceedings of the Assembly of Divines and other Commissioners at Westminster, February 1644 to January 1645*, Edinburgh 1846.

9. Robert Clyde Johnson, *The Christian Ministry in: The Church and It's Changing Ministry*, Philadelphia 1961, 26

하지는 이런 구별이 정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말씀의 종들은 전 생애를 주의 교회의 봉사를 위한 사역에 바치고 있으나, 장로들은 일반적인 직업에 머물면서 단지 교회의 치리에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는 비판적이지 못했고, 세상과 교회와의 잘못된 대치 이념에서 속된 직업과 성스러운 직업 사이의 그릇된 대비 관계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말씀의 종의 직분은 거룩한 영역에 있는 직분이었다고 보여진다. 이 때문에 그는 장로직을 충분히 직분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고, 교회 회중의 요원으로 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성경은 이런 이원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바울은 자신이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하여 자신과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의 생활비를 조달했기 때문에 평신도(layman)는 아니었다(행 18:3, 20:34). 바울은 밤낮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살전 2:9, 살후 3:8, 비교 고전 4:2). 그렇지만 이 사도는 교회의 터를 놓는 일에 협력했고, 그의 소위 “세속적인 일”이 그의 직분의 가치를 조금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들에게 자기의 본을 따르므로 손으로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도록 촉구했다(행 20:35). 이 에베소 장로들(감독자들)이 세속적인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평신도들(속인들)”이라고 불려질 수는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세계에서는 세속영역과 성역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하지는 또한 모든 직분은 하늘에 계시는 한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직분의 일치성을 보지 못했다. 그는 말씀의 종의 직분의 권을 변호함에 있어서 너무 한편으로 치우친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 교권주의적인 직분개념을 보인 것이다. 그는 목사교권의 강한 경향을 가졌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상호 대치관계에 서 있지 않으며, 교권적으로 서로 종속된 위치에 있지도 않다.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마 23:8, 20:25-

28 비교)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진실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바울은 교회 앞에서 자신과 그와 함께 종된 자들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중”이 되었다고 말한다(고후 4:5). “목사, 장로, 집사는 각기 자기의 고유한 직분에서 그리스도의 하나의 소명과 몸(그리스도의)의 건설에 봉사하고 있다”¹⁰⁾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지에게서 보게 된 직분간의 대치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일치성을 위해 잘못되고 유해한 것으로 마땅히 거절되어야 한다.

10. J. Kamphuis, *Diaken en Kerkraad*, in: *Dienst*, xvii(1969), 14